



당원명: 2026년 6월 고2 학력평가 분석 및 수능 대비 전략보고서

1. 2026학년도 대수능 시험과 대비한 주요 특징 총평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은 철학, 과학, 법률 등 고도의 추론과 정보 간 유기적 연결 능력을 요구하는 지문이 출제되어 상당한 변별력을 확보하였다. 본 2026학년도 6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이러한 대수능의 출제 기조를 충실히 반영 하되, 고2 수험생의 인지 발달 단계에 맞추어 정보량과 난이도를 정교하게 조율한 징검다리 성격의 시험이다. 국제 무역계약, 식물 호르몬의 생장 기제, 매체 철학 등 융합적 사고를 묻는 독서 지문은 수능형 추론 문항의 전형을 보여준다. 또한, 독서 지문의 경제학적 개념을 작문 상황에 연계하는 융합 신유형을 도입하여, 단순 내용 일치를 넘어선 텍스트 적용 능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향후 수능을 대비하는 수험생에게 명확한 학습 방향성을 제시하는 우수한 평가 도구로 기능한다. (434자)

2. 난이도 분석

(1) 고등학교 내신 수준과 대비한 난이도

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의 내신 평가는 주로 교과서에 수록된 텍스트의 세부 내용을 암기하고, 학습 활동에서 다룬 한정된 개념을 얼마나 정확히 숙지했는지를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둔다. 반면, 본 학력평가는 철저하게 낯선 텍스트에 대한 현장 독해력과 주어진 개념의 낯선 상황 적용력을 묻고 있어 체감 난이도가 내신 대비 현격히 높게 형성된다. 문법 영역을 살펴보면, 내신에서는 어간과 어미, 어근과 접사의 개념을 개별적인 층위에서 묻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본 시험의 형태론 문항은 한 단어 안에서 활용의 기준인 어간과 어미의 경계를 나누고, 동시에 단어 형성의 기준인 어근과 접사를 이중으로 분석해야 하는 복합적인 사고를 요구하므로 단순 암기식 내신 학습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문학 영역 또한 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내신처럼 고정된 하나의 해설로 묻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제시된 외적 준거를 통해 특정 관점에서 텍스트를 능동적으로 재해석하도록 유도하므로 논리적 사고력이 훈련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까다롭게 느껴졌을 것이다.

(2) 수능 또는 모의고사 수준과 대비한 난이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본수능 및 평가원 주관 모의평가와 비교할 때, 본 고2 학력평가의 절대적인 정보 밀도나 어휘의 난도는 수험생의 학령을 고려하여 한 단계 낮게 설정되어 있다. 대수능에서 출제된 보증 계약의 연대 보증인 면책 조항이나 열팽창 계수와 액추에이터의 곡률을 계산하는 지문은 정보의 압도적인 양으로 수험생을 압박한다. 그러나 본 시험 문항이 요구하는 사고의 논리적 구조는 대수능과 완벽하게 동일한 궤를 달리고 있어 평가적 변별력이 매우 우수하다. 과학 제재에서 옥신 농도에 따른 각 기관의 생장 반응 곡선을 해석하는 문항은, 지문에 제시된 감수성의 역관계 논리를 시각적 그래프에 정확히 매핑하는 수능 킬러 문항의 구조를 그대로 차용하였다. 사회 제재 역시 인코덱스 정형 거래 조건별 위험 이전의 원리를 가상의 수입 계약 시나리오에 적용하여 물품 가격의 구조를 추론하게 함으로써, 수능 특유의 원리 적용형 고난도 문항의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대수능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본 시험은 자신의 추론적, 논리적 약점을 진단하기에 매우 적합한 수준의 난이도를 제공한다.



3. 제재별 특징

(1) 독서 제재

독서 영역은 인문, 사회, 과학의 세 가지 핵심 제재가 고르게 출제되었으며, 수능 국어의 최신 트렌드인 원리의 정확한 이해 및 구체적 상황으로의 융합적 적용을 적극적으로 차용하였다. 사회 제재는 국제 규범인 비엔나 협약의 계약 성립 요건인 청약과 승낙, 도달주의 원칙을 설명하고 무역 거래 규칙인 인코텀스의 정형 거래 조건들을 주제 통합 형태로 구성하였다. 각 조건에 따른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범위, 비용 부담의 분기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상품의 가격 결정 구조를 논리적으로 도출해내는 정보의 체계화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과학 제재는 식물 호르몬인 옥신의 극성 수송 기제, 익스팬신 단백질을 통한 세포 성장, 식물 기관별 최적 농도 및 감수성의 차이, 환경 자극에 따른 굴광성과 굴지성, 그리고 에틸렌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잎의 탈리 과정을 다루었다. 이러한 과학적 메커니즘을 단계적이고 인과적으로 파악하는 정밀한 독해력이 요구된다. 인문 제재는 빌렘 플루서의 매체 철학을 다루며, 전통적 이미지와 기술 이미지인 사진을 이항 대립적으로 비교 분석한다. 카메라라는 기계 장치의 불투명성과 그에 종속되어 수행인으로 전락한 인간에 대한 철학적 비판,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주체성 회복이라는 대안을 제시하여 추상적 사유를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능력을 깊이 있게 평가한다.

(2) 문학 제재

문학 영역은 현대시 두 편이 복합 출제되어 서정 갈래의 내재적, 외재적 감상 능력을 평가한다. 최영철의 현대시와 손택수의 현대시는 각각 상처 입은 존재들의 연대와 삶의 의지 회복, 그리고 공평한 현실 속에서의 배려와 공존의 미덕이라는 공통된 인문학적 주제 의식을 관통하고 있다. 수능의 출제 기조와 동일하게, 작품에 대한 사전적인 암기 지식을 묻는 것을 철저히 배제하고 텍스트 내에서 대상이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를 내재적으로 분석하게 한다. 물에 젖은 가구의 의인화 기법이나 농부의 무심한 배려 이면에 담긴 이타적 태도 등을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다. 또한, 별도의 보기 지문을 통해 감상의 명확한 외적 증거를 제공한 뒤, 시의 구체적 구절들이 이 증거에 논리적 모순 없이 정합적으로 연결되는지를 엄격하게 평가하는 전형적인 수능 문학 평가 방식을 취하고 있다.

(3) 화법과 작문 제재

화법과 작문 영역은 학생들의 실생활 및 학업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된 담화 및 작문 상황을 설정하여 정보의 생산, 수용, 상호작용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주력하였다. 화법에서는 한글 자음자 명칭의 유래에 관한 개인의 정보 전달 발표와, 교내에 방치된 폐현수막의 재활용 방안에 관한 학생회 구성원 간의 토의가 출제되었다. 특히 훈몽자회와 향찰 등 중세 국어의 차자 표기법과 같은 문법적 지식을 화법의 소재로 삼거나 1, 설문 조사 통계 및 전문가 인터뷰 등 다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종합하여 토의의 대안을 마련하게 하는 등 융합적 사고를 강력히 요한다. 작문 영역에서는 독서 지문인 공유 자원과 공유지의 비극 개념을 작문의 배경지식으로 선행하여 읽고, 이를 바탕으로 교내 텀블러 세척기 설치 건의문을 작성하는 융합 세트가 출제되어 독해력과 표현력의 경계를 허물었다. 또한, 구상나무의 멸종 위기를 다룬 교지 기사 작성 세트가 출제되어, 조건에 맞는 글쓰기, 수집 자료의 비판적 선별과 적절한 활용, 고쳐쓰기 등 작문 인지 과정의 전 단계를 입체적으로 평가한다.

(4) 문법과 매체 제재

문법 영역은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음운론 등 현대 국어 문법의 핵심 체계를 빠짐없이 다루어 문법적 원리의 이해와 적용을 묻는다. 한 단어 내에서 어간과 어미, 어근과 접사의 개념을 혼동 없이 동시에 분석하는 문항, 서술어의 문형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문장 성분의 필수성과 생략 가능성을 엄격히 검증하는 통사론적 문항이 출제되었다. 나아가 문장의 구조적 중의성을 해소하기 위해 보조사를 추가하거나 어순을 변경하는 등의 다양한 수정 방안의 성패를 가능하는 의미론 문항, 제시된 단어들의 실제 발음형을 바탕으로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 자음군 단순화, 비음화 등 일련의 음운 변동 현상을 정확히 동정하는 음운론 문항까지 고르게 배치되어 수험생의 문법적 기초 체력을 빈틈없이 점검한다.



4. 주요 문항별 특징

(1) 출제 의도에 대한 심층 분석

본 학력평가의 문항들은 텍스트 표면에 드러난 정보의 단순한 탐색을 지양하고, 텍스트에 내재된 논리적 규칙과 추상적 원리를 완전히 새로운 상황에 유연하게 적용하는 전이 능력을 묻고자 심혈을 기울여 의도되었다. 과학 제재의 문항은 지문에 서술된 옥신에 대한 기관별 감수성 차이를 바탕으로, 감수성이 높을수록 낮은 농도에서 생장이 억제된다는 반비례의 텍스트 원리를 그래프의 축 관계 곡선으로 완벽히 변환해 낼 수 있는지를 묻는 고차원적 사고력 평가 문항이다. 이러한 문항 설계는 수험생이 단순히 문장을 읽어내는 수준을 넘어, 머릿속에서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도식화하고 시각적 데이터로 치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가능하는 강력한 척도가 된다.

(2) 선택지를 파악하는 데 있어 주의할 점

출제자들은 수험생의 인지적 착각과 속독의 허점을 찌르는 매력적인 오답을 정교하게 설계하여 배치하였다. 가장 주의해야 할 함정은 인과관계 및 비례관계의 교묘한 역전이다. 사회 제재의 정형 거래 조건 문항에서 오답 선택지는 DDP 조건이 매도인의 의무가 최대이므로 최종 물품 가격 역시 가장 비싸게 책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품 가격이 저렴하여 매수인에게 유리하다는 식으로 경제적 인과관계를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 수험생을 유혹한다. 또한, 주체와 객체의 전도 역시 빈출되는 함정이다. 인문 제재의 매체 철학 문항에서는 사람들이 신매체인 기술 이미지를 구시대의 전통적 이미지처럼 맹신하여 수용한다는 본문의 논지를, 전통적 이미지를 기술 이미지와 유사하게 수용한다고 서술의 주체와 대상을 맞바꾸어 오답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수험생은 선택지를 판단할 때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호응은 물론 인과의 방향성이 지문과 완벽히 일치하는지를 끝까지 의심하며 읽어내는 비판적 독해 습관을 길러야 한다.

(3) 기존 문제와 다른 변별력을 가진 경우에 대한 설명

본 시험에서 기존 학력평가와 구별되는 가장 눈에 띄는 변별력을 지닌 문항은 작문 영역의 융합 문항이다. 과거의 전통적인 작문 문항은 단순히 글쓰기 상황이나 조건만을 던져주고 작문 계획의 반영 여부를 묻는 데 그쳤다. 그러나 본 문항은 경제학의 기본 개념인 배제성과 경합성,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공유지의 비극을 다룬 짧은 독서 텍스트를 선행하여 제시한다. 수험생은 이 이론적 틀을 완벽히 소화한 후, 작문 상황에서 예상되는 반론을 방어하기 위한 핵심 논거로 경제학적 해결책을 어떻게 차용하고 이식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작문 기능 평가를 넘어 심층적 독해력과 논리적 작문 능력을 동시에 요구하는 진정한 의미의 융합 문항으로, 최상위권 수험생을 변별하는 강력한 도구로 작용한다.

(4) 선택형 문항과 서술형 문항의 비율 및 특징

본 학력평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체제와 문항 구성을 완벽하게 모방하여 따르고 있으므로 100% 선택형, 즉 객관식 5지 선다형 문항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서술형이나 논술형 문항은 일절 존재하지 않는다. 주관식 문항이 배제된 대신, 수험생의 고차원적 사고력을 정밀하게 변별하기 위해 각 단원과 제재별로 보기 상자형 추론 문항인 이른바 킬러 문항을 전략적으로 배치하였다. 이러한 고난도 추론 문항에는 예외 없이 3점의 높은 배점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점수 차이를 유발하고 변별력을 확고히 확보하고 있다.



5. 2027학년도 대수능 대비 디테일 학습 전략

본 시험 및 2026학년도 대수능 기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대비 세부 전략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할 수 있다.

첫째, 독서 영역에서는 이항 대립과 인과 및 비례 관계의 구조적 독해를 내재화해야 한다. 최근 수능의 독서 지문은 방대한 정보를 병렬적으로 단순 나열하는 것을 넘어 명확한 논리적 골격을 지니고 있다. 인문 지문의 경우 전통적 이미지와 기술 이미지가 처럼 두 가지 핵심 개념의 속성을 대조하는 이항 대립 구조가 빈출된다. 수험생은 독해 시 머릿속에 표를 그리듯 두 개념의 속성과 한계를 정확히 1대1로 대응시키며 읽는 훈련을 해야 한다. 과학이나 경제, 법률 지문은 원인과 결과, 변수 A가 증가할 때 변수 B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따지는 인과 및 비례, 반비례 관계 파악이 생명이다. 지문을 읽을 때 이러한 관계식을 여백에 간략히 도식화하는 훈련을 반복하여, 복잡한 텍스트를 구조적 데이터로 치환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둘째, 문학 영역에서는 보기를 활용한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정합성 판단 연습이 필수적이다. 수능 문학은 감상의 주관성을 철저히 배제하고, 출제자가 보기를 통해 명시적으로 제시한 객관적 기준 즉,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만 텍스트를 해석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현대시 문항에서 보듯, 새가 먹이를 쪼는 본능적 행위를 자의적으로 타자를 위한 공존과 배려라고 확대 해석하면 치명적인 오답에 빠지게 된다. 공존의 주체는 먹이를 남겨둔 농부인가 아니면 먹이를 취하는 새인가와 같이 행위의 주체와 시적 의도를 보기의 논리에 비추어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따지는 연습이 요구된다. 또한 2027학년도 EBS 연계 교재에 수록된 고전 가사 구수상사곡 등에서 나타나는 화자의 능동성, 과장적 표현의 문학적 효과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시조 등 타 작품과 상호텍스트적으로 비교 대조하는 훈련을 병행하여 낯선 복합 지문에 대한 내성을 키워야 한다.

셋째, 화법과 작문 영역은 다매체 자료의 융합적 해석과 비판적 수용 능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이 영역에서 상위권의 변별력을 가르는 핵심은 자료 활용 방안 문항이다. 통계 데이터, 전문가 인터뷰, 신문 기사 등 분절되고 파편화된 다수의 자료를 동시에 던져주고, 이를 작문이나 토의의 본문에 논리적으로 어떻게 결합하고 반영할 것인지를 묻는다. 수험생은 각 자료를 읽는 즉시 해당 자료가 문제점의 심각성을 지적하는지, 해결책의 당위성을 제시하는지, 아니면 주장을 보강하는 근거 수치인지를 문항 옆에 간략히 메모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이후 선택지에서 원인과 해결책을 교묘하게 뒤바꾸거나 자료의 통계적 의미를 왜곡하지 않았는지 철저하게 크로스체크하는 기계적이고 빠른 검증 훈련을 체화해야 시간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넷째, 문법 영역은 개념의 완벽한 층위 분리와 실전 예문 적용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문법은 단순한 규칙 암기만으로는 결코 득점할 수 없다. 형태론 문항처럼 하나의 형태소나 단어 안에서 형태 변화의 관점인 어간과 어미를 구분하고, 이와는 전혀 다른 층위인 의미 결합의 관점에서 어근과 접사를 완벽하게 분리하여 이중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 한다. 품사론, 형태론, 통사론, 음운론의 기본 개념과 예외 규정을 백지에 스스로 구조화하여 써 내려갈 수 있을 때까지 체화 반복 학습을 진행해야 한다. 이후 확보된 개념적 틀을 바탕으로 다양한 수능 및 평가원 기출 예문에 직접 형태소 단위로 쪼개어 적용해 보는 실전 분해 연습이 동반되어야만 문법 영역에서 안정적인 만점을 확보할 수 있다.